

보성, 민선8기 첫 추경 6,860억원

본 예산 대비 총 964억원 증액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 증진 소득 증진·일자리 확대 기대

보성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964억 원 증액 편성해 6,860억 원으로 확정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군정 주요 핵심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31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4억 원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28억 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도 6억 원을 추가 편

성했다. 특히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보수 46억 원 ▲보성 도시집수 관로 정비사업 7억 원 ▲저수지 보강 및 보수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가뭄 대책비와 관광 개발사업에도 3억 원을 추가 편성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9억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13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23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억 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86억 원을 투입한다.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마을안길 포장 11억 원 ▲흙수로 구조물화 5억 원 ▲농로포장 8억 원 ▲기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8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9억 원을 반영했다.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정사업) 20억 원 ▲문덕면 기초생활거점 10억 원 ▲별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억 원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26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5개소) 65억 원 ▲회천 야구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준비했다”며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켜내 보다 발전된 보성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광양, 지자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 ‘최우수상’

광양시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개 부문(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사업) 모두 ‘최우수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일자리 최고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했다.

광양시는 이번 수상으로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8년 연속 수상과 8,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개청 이래 최초 일자리대상 전 부문 수상이라는 뜻깊은 영예를 안았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방고용노동지청의 1차 평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2차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친 정부 일자리 분야 최고 수준의 평가이다.

공시제 부문 평가에서는 일상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전략을 통한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성과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요 성과로는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와 일자리 회복 총력대응으로 고용률 69.3%, 취업자 수 7만9,900명, 상용근로자 수 4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3개 고용지표 모두 상승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부터 자립 기반 지원까지 단계별 전략을 통한 청년 인재 집중육성과 돌봄 플랫폼 확대를 통한 여성 일자리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대폭 확대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률(40.7%)과 여성 취업률(55.4%) 모두 4년 연속 상승효과를 보였다.

우수사업 부문 평가에서는 광양시와 (사)광양만권HRD센터가 추진한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권동현 기자



광양시가 최근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양시 제공



AIPH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AIPH 현지실사단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 마지막 현지실사를 마쳤다. /순천시 제공

AIPH 회장 “기후변화 대응 모범사례 될 것”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지실사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 국제원에 생산자협회(AIPH)의 마지막 현지실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AIPH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AIPH 현지실사단은 국제그린산업발전포럼 참석과 2023정원박람회 현지실사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순천을 방문했다.

현지실사에 앞서 지난 22일 실사단은 원예정원을 통한 도시발전, 그린시티 각국 사례 등 주제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발전방

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진행된 현지실사는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저류지 정원, 미래정원,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종 현장실사를 진행한 버나드 회장은 도심과 연결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둘러보고 ‘정원에 삽니다’라는 박람회의 주제어에 공감하며 “정원을 도심으로 확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곡성,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출시

참계탕 등 10개 음식점 참여 곡성군이 최근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캠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곡성군은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맛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음식점의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해 지역 내 캠핑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10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곡성군 홍보대사인 강레오 셰프의 컨설팅을 받아 인기 메뉴들을 밀키트 제품으로 구현했다. 참계탕에서부터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능이닭곰탕, 토란탕, 곡성깨비정식까지 ‘곡성5미’를 쉽게 맛볼 수 있다. 또한 감자탕, 갈비탕, 해물 첩판구이 등 다양한 음식을 밀키트로 만날 수 있다. /곡성=한정길 기자

자연드림씨앗재단, 구례 산부인과 운영비 기탁

총 2억 600만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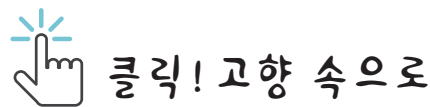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이 최근 기부금 기탁식을 열고 구례군에 2억600만 원을 전달했다.

구례군과 자연드림씨앗재단은 구례군 주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4년 기탁 협약을 맺고 구례군보건의료원의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탁식을 개최해 왔다.

구례군 주민들은 2014년까지 전남도의 지원

을 받아 매월 2회 오전 3시간씩 버스 안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시기를 놓쳐 당일 진료를 받지 못한 주민은 다른 시·군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산부인과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신규 채용돼 지금까지 1만2,630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다. 이 중 0-19세 사이의 아동 135명, 20-49세 사이의 가임여성 3,161명, 50세 이상의 비가임 여성 9,334명이 진료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여수 국동, ‘빵은 사랑을 싣고’ 나눔 행사

여수시 국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빵은 사랑을 싣고’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자치위원들은 재능기부에 나선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카스텔라 500개를 정성껏 구워내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방역 마스크 등 생필품 상자와 함께 빵을 취약계층 110가구에 전

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최상철 위원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순천 풍덕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순천시 풍덕동 마중물보장협의체가 최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10여 명의 위원은 집 안팎으로 오래도록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안청소와 정리정돈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집안이 습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었는데 곰

팡이 제거뿐 아니라 집안 정리정돈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영찬 위원장은 “지역 내 문제를 주민이 같이 해결하는 공동체복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드리는 마중물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아자아자’ 캠프

보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12팀 25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자아자’ 캠프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 요가, 마음을 소통하는 가족 역할극, 아빠와의 요리 타임 등 아빠와 자녀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어느 샌가 훌쩍 커버린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의 속마음을 듣고, 아빠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